

## 축 사

어느덧 무더웠던 더위가 가시고, 땀방울로 대지를 적셨던 농부들은 황금물결로 출렁이는 들녘을 보며 수학의 기쁨을 풍성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행무상이라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만물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깨달으시고, 부처께서는 제자들과 사부대중에게 부지런히 정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해방과 민족분단의 혼란기를 겪으며, 민중의 깨침과 불법홍포를 위해 노력하신 태허조사는 민족의 암흑기에서도 변화하는 시대를 위해 불법을 따르며, 불제자로서 불법홍포를 위한 실천행의 노력을 활발히 펼치셨습니다. 오늘 태허 조사의 다례제에 맞춰 관음종의 종도들이 스님의 발자취를 찾아 유필로 남기신 귀한 문집을 학문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어렵고 혼탁한 시절에 조사께서는 한국불교가 시대적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것을 종도들과 함께한 맹서를 통하여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거래를 위하여 눈이 되겠다.”

“우리들은 겨레를 위하여 등불이 되겠다.”

“우리들은 겨레를 위하여 길잡이가 되겠다.”

이러한 원력의 서원이 관음종의 오늘이 있게 한 근간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불교는 이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우리 불제자들은 과거의 구호를 오늘날 바람에 맞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계를 위하여 눈이 되겠다.”

“우리들은 세계를 위하여 등불이 되겠다.”

“우리들은 세계를 위하여 길잡이가 되겠다.”

오늘 태허조사의 큰 뜻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는 노력은 뜻깊은 불사이며, 나아가 후학들은 스승의 크신 뜻을 몸소 실천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원만히 성취되길 기원드리며, 끝으로 본대회를 준비하며 분주하신 총무원장 홍파스님을 비롯한 종단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기2556(2012)년 10월 10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